

'올림픽 스타' 꺾고 양궁 금...광주체고 강민재 '미래 스타'



양궁 90m서 '도쿄 2관왕' 김제덕에 쏘오프 끝 승리
"나 자신 믿는다는 마음으로 시위 당기니 좋은 결과"
김종명 코치 조련 큰 힘...순발력·운영능력 등 늘어

김제덕(광주체고 3년)가 도쿄올림픽 2관왕 김제덕(경북일고)을 꺾는 파란의 주인공이 됐다. 김민재는 지난 9일 경북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102회 전국체육대회 양궁 남자 고등부 90m 경기에서 325점을 쏘 김제덕과 동점을 이룬 후 쏘오프에서 승부를 결정짓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제덕은 70m, 50m, 30m 금메달, 혼성·단체전 동메달,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며 전국체전 7개 종목에서 모두 메달을 목에 걸었다. 개인 종목에서 유일한 은메달이 90m 경기였다.

김민재는 김제덕과 두차례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중학교 3학년때 열린 중교연맹전 30m에서 김제덕에게 밀려 은메달에 그쳤다. 그리고 이번 대회

는 설욕의 무대가 됐다. 도쿄 올림픽 스타를 쏘오프까지 몰아붙인 끝에 제압한 것이다.

김민재는 "경기 전 연습라운드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다. 나 자신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시위를 당기다보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올림픽 스타가 된 제덕이와의 경쟁에서 메달 색을 바꿔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학교 3학년때 금메달을 땀던 제덕이가 올림픽에서 2관왕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나도 할 수 있다'는 동기 부여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민재는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민재는 지난 3월 광주체고에 등지를 튼 김종명



광주체고 강민재

코치의 조련으로 크게 성장했다.

김 코치는 기존 훈련방식이 아닌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선수들 경기 감각을 끌어 올려 사대에서 순발력, 경기 운영 능력을 극대화했다.

정신력과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매 순간 집중력을 요하는 양궁 특성 상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 강도 높은 체력훈련도 병행했다.

게임식 훈련을 도입해 선수들이 힘든 훈련을 자

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었다.

특히 올해 창단된 남구청 남자양궁팀은 선수들에게 뚜렷한 목표의식과 강한 동기부여가 됐다.

이들 바탕으로 광주체고 남자 양궁부는 전원이 원팀이라는 끈끈한 팀 분위기가 형성됐고, 올해 열린 화랑기, 대통령기, 중교연맹전에서 3회 연속 단체전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유인선, 조정우, 구도원 등 선수들은 다수의 개인 메달을 수확했다.

광주체고 출신인 김 코치는 "선수들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발굴하고 집중 조련해 광주 남자양궁 옛 명성 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 조선대, 남구청으로 이어진 연계육성 시스템에 일조한다는 마음 자세로 '제2의 장용호'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꼭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교에서 후배들을 지도하는 것에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며 "선수들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점을 극대화해 최고의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소프트볼 여고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광주 명진고 선수들.

<광주시체육회 제공>



남고부 세단뛰기에서 15.25m로 우승한 전남체고 이경민.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 명진고 소프트볼 금...전남체고 육상 하루 금 3

광주체고 윤동현 레슬링 우승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 결승행

소프트볼 여고부 강호 광주 명진고가 전국체전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다.

전남체고 육상 선수들은 하루에 금메달 3개를 쓸어들었다.

12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대회 5일째인 이날 광주선수단이 금메달 24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21개 등 총 66개의 메달을 획득, 선전하고 있다.

명진고는 12일 경북 양덕유소년야구장에서 열린 리기로 한 경남(진주외고)과의 결승전이 우천으로 취소돼 공동 우승을 차지했다.

명진고는 지난 9일 경기(일산국제컨벤션고)를 10-8로 제압하고 준결승에 올라 대구(구암고)를 5-4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다. 경남과의 결승전 날 폭우로 인해 대회 규정에 따라 공동 우승을 확정 지었다.

명진고는 지난 제97회, 제96회, 제95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명문이다. 하지만 제98회, 제100회 체전에서 은메달에 그쳤으나 이번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윤동현(광주체고 3년)은 레슬링 G87kg급 결승에서 대전(이강주)을 누르고 깜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구(정현준)와의 준결승에서 폴승을 기선을 제압한 윤동현은 결승에서도 기세를 몰아 대전을 물리치고 정상에 섰다.

육상 기대주 이규림(광주체고 3년)은 3000m장

애물에서 충남(홍해인, 11:07.03)에 뒤져 11:24.00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육상은 이날 금메달 3개를 수확하는 등 금빛 질주를 선보였다.

스타트는 이경민(전남체고 3년)이 끊었다.

이경민은 남고부 세단뛰기에 출전해 15.25m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경민은 이번 대회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하나씩 획득하며 차세대 멀리뛰기 유망주로 이름을 알렸다.

지경희(전남체고 3년)는 여고부 세단뛰기에서 12.10m를 날아올라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김동욱·임민경·장세빈(이상 전남체고 3년), 배건울(전남체고 1년)이 출전한 4X400m 혼성계주에서는 3분35초20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충남선발(3:35.49)을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일찌감치 3관왕을 달성한 자전거 김채연(전남체고 2년)은 이날 여고부 도로개인독주 15km에서 23분28초18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고 이번대회 금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따냈다.

진건우(광양고)는 태권도 남고부 +87kg, 박수인(전남기술과학고)은 복싱 남고부 라이트급, 강경환(전남체고)은 레슬링 남고부 그레코로만형 97kg급, 불링 남고부 5인조(전남선발)가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순천여고는 소프트테니스 4강전에서 경북 선발을 3-1로 꺾고 결승에 진출해 13일 단체전 2연패에 도전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고진영 세계 1위 탈환 보인다 0.29점 차로 넬리 코다 추격

고진영(26·사진)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앞세워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경쟁에 불을 붙였다.

고진영은 11일자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2위로 변함없이 있지만 1위 넬리 코다(미국)와 간격을 0.29점으로 좁혔다.



11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한 고진영은 지난주의 경우 랭킹 포인트 8.22점으로 9.66점의 코다와 1.44점 차이가 났다.

그러나 이번 우승으로 9.10점이 되며 9.39점의 코다를 바짝 추격하게 됐다.

불과 한 달 전인 9월 랭킹에서 코다가 10.09, 고진영 8.06으로 2점 이상 차이가 났지만 이제는 점진적으로 추격해 갔다.

이는 고진영이 7월부턴 최근 6개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 3회, 준우승 1회, 6위 1회 등 꾸준한 상위권 성적을 낸 덕분이다.

반면 코다는 7월 이후 4개 대회에 나와 최고 성적이 공동 13위에 머물렀다.

고진영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거의 2년간 세계 1위를 달리다가 코다에게 그 자리를 내줬다.

특히 21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는 코다가 불참하고, 고진영은 홈 코스의 이점이 있어 1위 탈환의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고진영은 세계 랭킹 외에 LPGA 투어 시즌 개인 순위에서도 코다를 추격 중이다.

상금에서 코다가 197만4657 달러로 1위, 고진영은 165만6415 달러로 2위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 상금은 30만 달러다. 또 올해의 선수 포인트도 코다 161점, 고진영 146점으로 1, 2위 경쟁 중이고 CME 글로벌 포인트, 평균 타수 모두 코다와 고진영이 1, 2위를 달린다.

이번 주 세계 랭킹에서는 3위 박인비(33), 4위 김세연(28), 10위 김효주(26) 등 한국 선수 4명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10일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수지(25)는 127위에서 27계단이 오른 100위가 됐다. /연합뉴스

최민정 측 "심석희 고의충돌 의혹 밝혀 달라"

대한체육회·빙상연맹에 조사 요청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23·성남시청) 측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도중 심석희(24·서울시청)가 고의로 충돌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최민정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빙상경기연맹뿐 아니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팀 관리 및 운영 총

괄의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에 11일 공문을 발송해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 고의충돌 의혹을 비롯해, 심석희와 국가대표 A 코치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의충돌 의혹은 심석희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측이 법정에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 내용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의견서에는 심석희와 A 코치가 2018년 평창동

계올림픽 당시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적인 문자 메시지가 담겼는데, 국가대표 동료들을 향한 욕설이 담겼다.

또 최민정 측에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여자 브래드بری 만들어야지"라고 이야기 해 고의충돌을 의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스티브 브래드بری(호주)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전에서 앞서 달리던 선수들이 한데 엉켜 넘어지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다.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는 심석희와 최민정이 충돌해 넘어졌다.

마지막 바퀴, 최민정이 외곽으로 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앞서 달리던 심석희와 코너 부근에서 엉켜 미끄러져 넘어졌다.

심석희는 페널티로 실격처리됐고, 최민정은 4위로 밀려 두 선수 모두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한편 심석희는 전날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고의 충돌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심석희는 "미성숙한 태도와 언행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기사를 접하고 충격받았을 김아랑과 최민정, 코치 선생님들께 마음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배움 2: 렛 데이 비 카니지
2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3관	보이스
4관	배움 2: 렛 데이 비 카니지
5관	배움 2: 렛 데이 비 카니지
6관	배움 2: 렛 데이 비 카니지
9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용과 주근깨 공주, 매직 스톤: 초보마법사 아우라의 대모험
7관 씨네커튼	상자와 텐 링즈의 전설,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 국영민 핑크는 뽀얏라, 격돌! 부산광역시 육구과 열추 녀명의 왕세, 푸른 호수, 부니베어: 애들이 줄었어요
8관 씨네커튼	가격

GAC 11시 음악산책 7
박은식의 피아노의 숲
일시: 2021.10.27(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GAC기획공연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_현악 4중주
일시: 2021. 10. 30.(토) ~ 11. 06.(토)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5